

일 주 문

리오스 불발탄 피해예방교육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8월 8일부터 리오스 씨엔쿠양 지역 불발탄 피해예방교육지원 캠페인을 위한 후원자를 모집한다. (02)725-4277

관내 복지기관과 업무협약
조계종 선정동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8월 11일 관내 목동청년수련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소의계종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마음선원 '하안거 회향법회'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은 8월 20일 안양 본원 5층 대법당에서 '하안거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31)470-3100

캄보디아 교육 봉사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8월 4일 청소년 해외봉사단 '청춘 두드림' 1기 발대식을 갖고 7박 9일간 캄보디아로 교육봉사를 떠났다

백일출가생 모집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8월 28일 까지 20기 백일출가생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신청 가능하다. (054)571-1230

추석맞이 저소득 가정 쌀 지원
부산 원광사 주지 지광 스님 8월 8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추석맞이 보시로 쌀10kg 300포를 전달했다.

장학회에 기부금 전달
김용철 군포시장예인종합복지관 관장은 8월 7일 복지관 군포시장장학회에 기부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작업실 상주 단체 공모
이철진 (사)한국체육예술센터 이사장은 8월 30일까지 춤·전통예술 네트워크를 위한 대학로 '춤이 있는 작업실' 상주 단체를 공모한다. (02)747-5035

MBSR 일반·심화과정 개설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은 8월 27일부터 MBSR심화과정을, 9월 1일부터 MBSR일반 과정을 진행한다. (02)525-1588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952호 4면 '이치노혜 스님 일본 참회비 제막' 기사 소재목 중 '11월 26일 부산서'를 '7월 26일 부산서'로 바로 잡습니다.



지역사회에 개방한 동국대 중앙도서관장 권한 스님

“동국대 중앙도서관 열린 공간으로 확대”

대학 공공 역할 확대에 기여 도서 기부는 종립도서관 발전

동국대 중앙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사립대학 최초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한편 도서 기부자의 네이밍 제도 도입 후 기부금 담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3년 전국 대학 도서관 중 7위, 사립대 중에는 4위로 동국대 도서관은 종립 도서관으로서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건학 107년 만에 비구니 스님이 최초로 중앙도서관장으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권한 스님을 만났다. 권한 스님은 “대학 도서관은 교육, 연구, 학습의 지원조직”이라며 “중앙도서관이 국내 최고 수준의 불교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교적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호흡할 수 있는 불교학술 정보결집 및 제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월 관장 취임 후 늦은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대학이 인재양성의 역할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열린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듣고 도서관이 그 역할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열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사립대학 최초로 도서관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국대 도서관은 최근 중구에 거주 중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제쳤다. 자료실 출입은 물론, 140만권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PC, VHS 자료 등 멀티미디어실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명사지식강연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Human Book Library와 같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님은 “중앙도서관의 지역개방은 전문학술 정보와 시설,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 도서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역과 대학, 지역과 도서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동력 확보에 불자들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국대와 동국대 도서관에는 발전기금이 담도 하고 있다. 특히 중앙도서관은 각종 자료실과 세미나실에 기부자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네이밍 등을 활용해 도서관 발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기부자 예우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부자의 사이버 기증문고를 마련하고, 소액기부자를 발굴하여 구입된 도서에는 ‘이 책은 어느 분의 기증도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기부자 이름을 새긴 장서표를 붙이고 있다. 또 도서검색 시 기부한 책의 목록이 확인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앙도서관은 국보 212호인 <수능염경首楞嚴經>과 보물 13점을 포함한 3만여 책의 귀중본과 불교학자료를 독보적이지만 아름다운 보석도 여럿 속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듯이, 스님들은 물론 많은 불자들이 불교학의 보고(寶庫)인 중앙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의 전화’ 정덕 스님,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20여년간 자비의 전화를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여 온 노원구 월계동 인과선원 주지 정덕 스님이 학생들을 위한 중앙도서관 도서구입기금에 보태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덕 스님은 8월 5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찾아 3000만 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과 정창근 경영부총장, 중앙도서관장 권한 스님, 이창학 대외협력실장, 박세훈 학술정보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정덕 스님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하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면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종립 동국대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스님의 아름다운 보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이 마련되



‘자비의 전화’를 설립한 정덕 스님은 8월 5일 동국대에 도서관 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었다”면서, “귀중한 정재를 기부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변인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자비로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지난 1979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대영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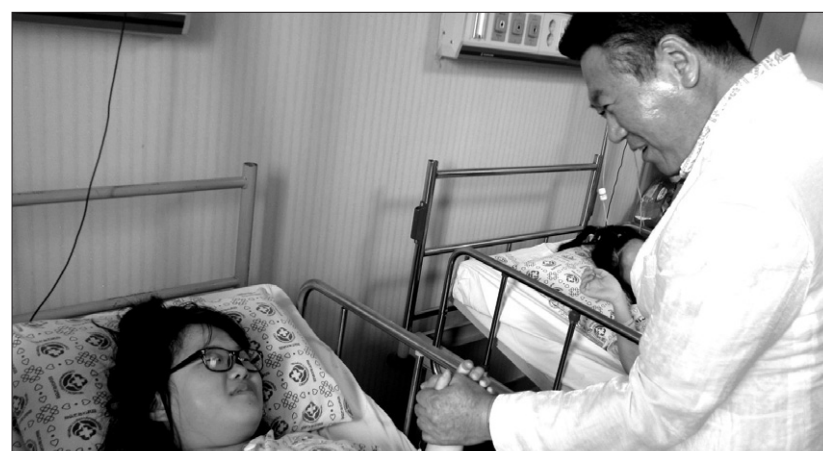
스님은 1990년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아픔을 보고 느끼자”는 취지로 불교계 최초의 전화상담 봉사기관인 ‘자비의 전화’를 설립하여 20여 년간 운영해오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왔다. 2012년에는 출가 전 인연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정덕스님이 들려주는 인과(因果)>를 출간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신도회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나서... 지원금 1000만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7월 30일 ‘다문화가정 및 2세 의료지원 사업’으로 유연성 골연골증을 앓고 있는 해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소녀 김혜진, 김유진 자매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의료 지원은 지난 5월 날마다 좋은날이 협찬한 다문화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KBS 오아시스에 출연한 다문화가정 2세 김혜진, 김유진 자매를 국민은행이 사회공공모금회를 통하여 지정 기탁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혜진, 김유진 자매는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2세로 아버지가 앓고 있던 유연성 골연골증을 유전받았다. 유연성 골연골증은 무릎 뼈에서 양성종



7월 30일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 회장이 전남대병원을 찾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양이 발생하여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자매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걷기조차 힘들 상황이었다. 중앙을 절제하는 정기적인 수술이 필요한 가운

데 부족한 집안 형편으로 수술이 미루어져 온 상태였다. 수술은 7월 30일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여름 수련회 ‘솔바람소리 찾아서’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 ‘솔바람소리 찾아서’를 실시했다.

8월 2일~4일, 8월 5일~7일 각각 실시한 이번 수련회에서 총 30명의 참가자들은 나를 깨우는 108배, 걷기명상, 천년술길법계도, 금강경사경, 다도체매 마음챙기기 참선 등을 체험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두차례에 걸쳐 열린 여름수련회에는 각각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타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우리는 중생불! 몰록 깨칠 수 있다!

금강경 생활특강학기 수강생 모집

- 최고 원로 교수불자들의 열정적 체험강의 -

본각 선교원(원장, 고준환 교수)은 복잡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멘붕을 힐링하고, 행복한 생활(Well-being)을 위하여 깨달음을 지향, 생활의 지혜가 샘솟게 하려고 “금강경 생활특강”가을학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금강경 특강학기는 9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수시접수합니다. 교강사진은 금강경과 참선 등을 40여년 참구해온 제반 학문의 원로 교수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김탄허 스님, 이창담 스님, 백성욱 박사님(전 동국대 총장) 등으로부터 내공을 전수받은 바 큼니다. 각기 다른 전공의 교수들이 불교와 전공과목을 하나로 꿰뚫는 수월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불경가운데 반야부의 중심대승경이며, 깨달음과 직결된 선경(禪經)으로서 금강경을 통찰하여 실제생활에 응용하면 멋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able with 3 columns: Course Name, Instructor, Date/Time. Includes courses like 'Gold Sutra and Business', 'Gold Sutra and Law', etc.

- ▲ 수강료는 매일 한 과목당 10만원이고, 한 학기는 35만원인데, 선납 일시불인 경우 30만원입니다. 4과목 수강생으로 선납 일시불의 경우 100만원이고, 8개 전과목 수강자가 선납일시불인 경우 200만원입니다. 새학기 강의 시작 전 무료 소 개강의는 8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본각 선교원에서 전교강사진이 나서 전과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문답시간을 가집니다.
▲ 본각 선교원은 또 이와 별도로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깨달음을 위한 시각법회(始覺法會)를 프리로 열고 있습니다. (법사 : 선재 박준수 변호사, 아하 광파 고준환 교수 - 법화경과 선어록 중심)

본각선교원(석가대학원) ☎ 전화 02)762-4848

서울 중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http://cafe.daum.net/BonGagAcademy